

2019년 9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FOMC 앞두고 관망속 강보합 마감 CME FEDWatch 9월 FOMC 금리 동결 확률 53%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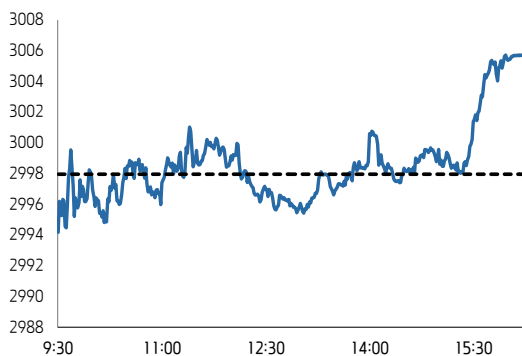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국제유가, FOMC

미 증시는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속에 하락 출발. 그러나 국제유가가 9월 말 이전 사우디의 공급 정상화 언급 소식으로 안정을 찾고,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장 마감 앞두고 대형기술주가 반독점 청문회 이후 상승 전환한 점도 긍정적. 다만,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상승 마감(다우 +0.13%, 나스닥 +0.40%, S&P500 +0.26%, 러셀 2000 -0.40%)

전일 급등 했던 국제유가가 오늘은 급락.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며칠간 손실된 산유량 중 50%가 회복 되었고, 9월 말 까지 피격 이전 수준을 회복 할 것이다” 라고 발표. 최근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에 대한 피격으로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를 해소 시킨 모습. 이 결과 국제유가는 6% 급락. 이 여파로 전일 급등 했던 에너지 업종이 2~4%대 약세를 보였음. 반면, 가솔린 가격도 안정을 찾자 소비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소매 유통업체, 항공, 자동차는 강세. 물론 일부 의류업종과 백화점 업체는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 둔화 이슈가 지속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아직은 관련 우려가 해소되지는 못함

한편, FOMC 를 앞두고 시장은 25bp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CME FedWatch 는 9월 FOMC 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53%로 제시하는 등 지난주 100% 금리인하와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렇듯 최근 ‘덜 비둘기적 통화정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은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선부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시장은 이번 FOMC 에서 점도표 하향 조정을 통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나올지 여부. 파월 의장이 7월 FOMC 당시 언급했던 중간적 조정이란 언급을 철회할 지 여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이 몇명이 나올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음. 결과에 따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2.33	+0.01	홍콩항셱	26,790.24	-1.23
KOSDAQ	644.28	+0.89	영국	7,320.40	-0.01
DOW	27,110.80	+0.13	독일	12,372.61	-0.06
NASDAQ	8,186.02	+0.40	프랑스	5,615.51	+0.24
S&P 500	3,005.70	+0.26	스페인	9,004.20	-0.53
상하이종합	2,978.12	-1.74	그리스	861.91	-0.69
일본	22,001.32	+0.06	이탈리아	21,801.93	-0.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3%

국제유가와 가솔린 가격이 급락하자 코노코필립스(-2.10%), EOG리소스(-5.16%) 등 세일오일 업종과 슬룸베르거(-2.90%), 할리버튼(-6.49%) 등 원유 서비스 업종이 크게 하락 했다. 반면, 발레오에너지(+2.33%), 에어 프로텍트(+2.94%) 등 화학 업종과 아메리칸 에어라인(+3.13%) 등 항공업종은 원가 절감 기대속에 상승 했다. 더불어 아마존(+0.81%), 월마트(+0.81%) 등 소매 유통업체는 가솔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상승 했다. 반면 노드스트롬(-9.76%), 콜스(-4.37%), 메이시스(-4.53%) 등은 낙폭을 축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을 이어갔다.

한편, 페이스북(+1.00%), 알파벳(-0.14%)는 반독점 관련 청문회 이후 장 마감 직전 상승하거나 낙폭 축소 했다. KLA-텐코(+0.93%)는 배당과 견고한 실적 전망을 발표하자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마이크론(+1.38%), 퀄컴(+0.83%)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코닝(-6.06%)은 디스플레이 및 광통신 부문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 했다. 다만, 애플이 코닝에 대해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자 낙폭이 확대되지 않았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0.60%)는 시간 외로 3% 하락 하고 있으며, 페덱스(-0.16%)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7% 급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32%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5.16%	중형 가치주 ETF(IWS)	-0.19%
소매업체 ETF(XRT)	-0.72%	소형 가치주 ETF(IWN)	-0.73%
금융섹터 ETF(XLF)	+0.11%	대형 성장주 ETF(VUG)	+0.60%
기술섹터 ETF(XLK)	+0.41%	중형 성장주 ETF(IWP)	+0.7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8%	소형 성장주 ETF(IWO)	+0.06%
인터넷업체 ETF(FDN)	+0.72%	배당주 ETF(DVY)	-0.10%
리츠업체 ETF(XLRE)	+1.4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8%
주택건설업체 ETF(XHB)	+0.2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5%
바이오섹터 ETF(IBB)	+0.05%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15%	하이일드 ETF(JNK)	+0.07%
곡물 ETF(DBA)	-0.83%	물가연동채 ETF(TIP)	+0.13%
반도체 ETF(SMH)	+0.40%	Long/short ETF(BTAL)	+1.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5.54	-1.52%	+1.92%	+6.43%
소재	365.87	+0.71%	+1.89%	+2.46%
산업재	664.94	-0.04%	+1.36%	+5.46%
경기소비재	962.16	+0.60%	-0.22%	+3.82%
필수소비재	620.14	+0.55%	-0.46%	-0.69%
헬스케어	1,054.78	+0.14%	+0.73%	-0.13%
금융	469.84	+0.10%	+1.51%	+5.69%
IT	1,422.34	+0.35%	+0.91%	+2.18%
커뮤니케이션	171.49	+0.29%	+0.79%	+2.91%
유틸리티	320.21	+0.89%	+1.52%	+2.61%
부동산	243.71	+1.40%	+1.37%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관망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11%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보합으로 마감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612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0.60pt 상승한 272.3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6.2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제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주 견고한 소매판매에 이어 미국 실물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은 점, 트럼프가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한 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텐코가 '투자자의 날'을 통해 이번 분기 견고한 실적을 전망하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33% 상승 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연준이 25bp 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CME FEDWatch 는 9 월 금리 동결 확률을 53%로 제시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FOMC 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실물경제지표 개선

8월 미국 산업생산은 예상(mom +0.2%)을 상회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5% 증가하는 등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공장가동률은 77.5%로 변하지 않았다.

9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67)은 물론 예상(66)을 상회한 68 로 발표되었다. 저금리와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며 주택시장 업체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5.7% 급락

국제유가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아람코 석유시설에 대한 피격에도 불구하고 9 월 말까지 피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다만, 미국이 이번 피격에 대해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동맹의 방어를 위해 '장전 완료'를 언급 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하락폭이 일부 축소되기 했다. 이번주 안에 트럼프가 관련한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메르켈 독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브렉시트 합의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하는 등 견고한 실물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최근 상승에 따른 반발과 함께 사우디와 이란을 둘러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뉴욕연은이 750 억 달러 규모의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자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CME FEDWatch 는 9 월 FOMC 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53%로 제시했다.

금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0%, 철근도 0.7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34	-5.66	+3.38	Dollar Index	98.214	-0.40	-0.11
브렌트유	64.55	-6.48	+3.48	EUR/USD	1.1074	+0.66	+0.28
금	1,513.40	+0.13	+0.95	USD/JPY	108.14	+0.02	+0.56
은	18.140	+0.63	-0.25	GBP/USD	1.2499	+0.55	+1.21
알루미늄	1,792.00	-0.06	-1.54	USD/CHF	0.993	+0.02	+0.09
전기동	5,821.00	-0.83	-0.07	AUD/USD	0.6867	+0.03	+0.09
아연	2,349.00	-0.68	+0.47	USD/CAD	1.3242	+0.02	+0.68
옥수수	368.00	-1.60	+1.80	USD/BRL	4.0766	-0.10	-0.14
밀	484.25	-0.92	+0.41	USD/CNH	7.0863	+0.34	-0.32
대두	893.75	-0.69	+2.49	USD/KRW	1190.70	+0.64	-0.52
커피	100.35	-3.79	-1.23	USD/KRW NDF1M	1186.26	+0.18	-0.3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07	-4.02	+7.49	스페인	0.282	+2.80	+2.60
한국	1.493	-4.70	+11.30	포르투갈	0.306	+3.90	+3.10
일본	-0.152	+0.10	+6.90	그리스	1.486	-4.00	-15.00
독일	-0.474	+0.60	+7.30	이탈리아	0.919	+7.80	-10.00